지식경제부 **보도참고자료**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최형기 과장(2110-4897), 신용민 서기관(4900)

5천만 국민의 힘으로 500만kW 발전소 지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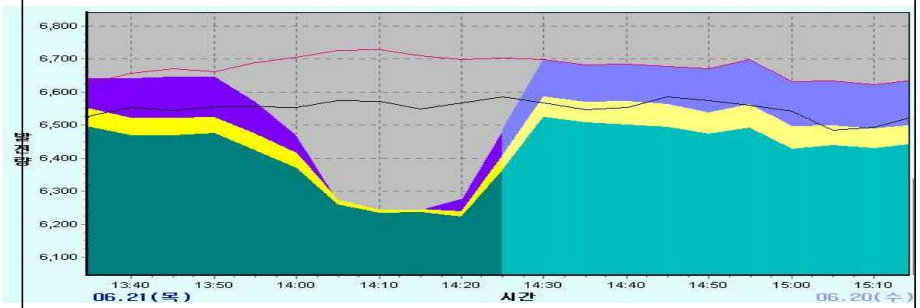
- **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현대제철 등 산업체는 조업시간 조정, 자가용 발전기 가동, 냉방부하 조정으로,**
- **롯데마트, 이마트, 신세계·현대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냉방정지, 조명소등, 비상 발전기 가동으로,**
- **서울역, 코엑스몰, 지하철·철도역 등 다중 이용시설은 공용시설 점등, 냉방가동 중지, 입주자 절전참여로,**
- **가정에 있는 국민들은 전기제품 일시 사용중지로,**

훈련성과

□ 6.21(목) 오후 14시, 민방위 사이렌과 함께 20분간 실시된 "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"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전기 모으기에 동참한 결과,

○ 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500만kW의 전력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

【 훈련 당시(14:00~14:20) 전력부하 곡선 】



구 분	14:00	14:05	14:10	14:15	14:20
훈련미실시	6,769	6,790	6,794	6,774	6,764
훈련실시	6,471	6,276	6,246	6,247	6,278
차 이	△298만kW	△514만kW	△548만kW	△527만kW	△486만kW

부문별 참여현황 및 사례

□ **(산업체 : 피크 54%)** 경제단체, 업종별 단체, 산업단지 공단 등 스스로가 자율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참여

○ **(생산현장)** 삼성전자·현대자동차·포스코·현대제철·LG전자·SK 에너지 등 1,750개의 대표기업들은 조업시간 이동, 단축조업, 자가용 발전기 가동, 공장내 냉방설비 가동중지 등을 통해 참여

○ **(사무실)** 경제단체(전경련,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), 업종별 단체 등에 속한 모든 회원사들은 사내 절전협조 방송, 사무용 기기 일시차단, 실내 조명소등, 냉방가동 중지 등을 실시

* 포스코 본사 : 전체층 20분간 소등, 비상발전기 2대 가동

□ **(일반 건물 : 피크 25%)**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

○ **(유통업체)** 롯데·이마트·홈플러스/갤러리아·현대·신세계 백화점/테크노·하이마트 등은 고객 안내방송과 함께 냉방·공조·조명기기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,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업체는 발전기를 가동

* 롯데마트 : 97개 모든 점포가 실제 정전을 가정한 자체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상훈련을 실시
* 이마트 : 모든 점포에서 조명 50%소등, 냉방·공조기기 가동 정지 실시
* 홈플러스 : (14:00부터) 매장 1/3소등, 주차장 1/2소등, 매장냉방기기 일부 가동중지
  (14:10부터) 매장 2/3 소등, 매장 냉방중지

○ **(다중이용 시설)** 서울역, 코엑스몰, 지하철·철도역, 은행 등에서는 안내방송, 입주점포 절전홍보, 일부시설 전원차단 등 실시

* 서울역(한화역사) : 60개 임대점포(마트, 백화점 포함) 냉방가동 중단
* 신한·국민·하나·기업·농협 등 : 냉방중단, 조명소등, 비상발전기 가동 등

○ **(호 텔)** 조선·신라·롯데 호텔 등은 공용 및 직원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냉방온도 조정, 엘리베이터 가동중지, 조명 일부소등 등 실시

○ **(1,000kW 이상 대형건물)** 건물 관리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, 입주자 안내방송·절전유도, 중앙 냉방가동 중지 등 실시

□ **(교육 : 피크 3%)** 전국 11,472개 초중고에서는 훈련당일 1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절전훈련과 함께 701만 학생들에 대한 절전교육 병행 실시

○ 고려대, 이화여대, 부산대 등 대부분 대학에서도 중앙냉방 온도 조절, 사내 안내방송을 통한 조명소등, 절전유도 등을 실시

□ **(주택 : 피크 11%)** 훈련전 반상회보, 학생 가정통신문, 전기요금 고지서 등에 훈련내용을 게재하고,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

○ 훈련당일은 에어컨·선풍기 등 냉방기와 다리미·세탁기·청소기·전자렌지 등 전기 다소비 제품 사용 중단을 통해 참여

□ **(공공 : 피크 2%)** 전 공공기관은 훈련시간 동안 필수설비(보안, 안전, 전산설비 등)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

부문별 절감성과 분석

□ 전력사용량 대비, 산업체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

	피크 점유율	절감 기여도	절감량
산 업 체	54%	71%	387만kW
일반건물	25%	25%	138만kW
교 육	3%	1.6%	9만kW
주 택	11%	0.1%	0.5만kW
공 공	2%	2.3%	13만kW
계	95% (5% : 농사용, 가로등 등)	100%	548만kW

□ **(산업체)** 경제단체·업종별 단체 등은 사전에 자율 참여대책을 마련하여, 훈련당일 절감실적이 높았음

□ **(일반 건물)** 상업용 건물은 훈련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고객 불편함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우려로 적극적 참여에 한계

*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유통업체, 호텔, 다중 이용시설 등 관리주체가 있는 빌딩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 참여 유도

○ 사무용 건물은 건물 관리자가 직접 훈련을 안내하고, 절전을 실시하여 비교적 참여도가 높았음

□ **(주 택)** 주택 특성상 간접홍보 수단(TV·전단지·반상회보, 가정통신문 등)을 위주로 홍보를 진행, 참여 독려에는 한계

○ 낮 시간대에는 가정 주부들의 전력 사용량이 가장 크므로, 주부들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홍보채널(아침 TV프로, 마트·은행 등 다중이용시설)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

□ **(공공, 교육기관)** 소관부처를 통해 참여계획을 사전에 수립, 보고하게 함으로써 차질없는 훈련을 시행

단전 대응 훈련

□ "자율절전 훈련"과 함께 실제단전 상황을 가정하고, 단전시 대국민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"단전 대응훈련"을 실시

○ **(취약시설 대응훈련)** 승강기, 지하철, 병원, 교통 신호등* 등에 대해 실제 단전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

* 서울, 부산, 울산, 경기, 충북 등 5개 지역에서는 교차로 신호등 실제소등

- 소관부처 중심으로 불시 단전상황을 가정하여 시설별로 상황전파, 인명구조, 대피, 장애 복구조치 등 훈련 실시

○ **(시범건물 단전)** 계획 단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, 7개 대도시의 공동주택·상업용 건물·산업체·학교에 대해(각 1개소, 총 28개소) 10분간(14:10~14:20) 실제 단전을 실시

- 대상 건물은 건물 안내방송, 기기 손상방지를 위한 생산시설·가전기기 전원차단, 비상발전기·비상용 전원점검 등의 훈련을 실시

○ **(비상발전기 점검)** 불시 단전시 국민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비상발전기의 가동상태를 점검

□ 훈련이 실시된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관리자 통제, 안내방송 등에 따라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였고, 모든 훈련들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

○ 향후 훈련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, 단전 위기대응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

사후조치 계획

□ 훈련 전후 대국민 의식변화를 조사하고, 절전문화 캠페인 등에 활용

* 주요항목 : 현 수급상황 및 절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, 동참 의지 등

□ “국민발전소 건설” 캠페인을 정례화하는 등 금번 훈련을 통해 조성된 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운동 전개

□ 실제 경보 발령시 전국민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채널을 점검·보완 (경제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그물망형 채널 확보)

□ 훈련당일의 성과 및 미비점 등을 분석·보완하여 “전력 위기 대응 종합대책(전부처 합동)”을 수립

구 분	주요 내용
훈련성과 분석	각 주체별, 지역별 참여율 분석
	훈련 전후 대국민 인식변화
비상시 대국민 참여율 제고방안	각 주체별, 지역별 참여율 제고 방안
	비상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단체별(부처·공공기관, 시민단체, 업종단체 등) 홍보채널 마련
단전시 대응요령	승강기, 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불시 단전시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제작·배포

훈련결과 총평

□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 자원실장은 훈련종료 후

○ 바쁜 일상에서도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함

□ “금일 훈련은 최근 전력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,

○ 실제 전력수급이 비상상황에 돌입할 경우 실시하게 되는 「전국민 수요감축」과 「단전시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」을 사전 연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“고 훈련 목적을 설명하고,

□ “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, 관련기관·지자체·시민단체 등 모두가 적극 홍보에 참여하고,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절전에 동참하여 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커다란 훈련 성과를 거두었다”며

○ “다만 현장점검 결과, 일부 상가에서는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거나, 과도한 냉방으로 점원들이 긴소매 옷을 입고 근무하는 등 몇몇 부분에서는 여전히 전력낭비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”면서,

○ “이러한 부분은 점주뿐만 아니라 가게를 찾는 모든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”고 강조

□ 또한 “지난주부터 시작한 「국민발전소 건설 캠페인」은 오늘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한 만큼,

○ 정부는 금일 훈련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, 절전 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”이라며, 전국민이 전기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

□ “우리와 같이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일본은 사무실 온도를 28~30℃로 설정하고 복도는 거의 소등한다”며,

○ “모든 국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은 있더라도,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일상에서 전력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한번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한다”고 당부